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최재호



정치권·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본격화 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은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主犯)'이 되버렸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자체들은 규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모든 공휴일에 대형마트 휴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파리 시내엔 대형마트 없다

광주도 법원의 판결로 휴무일 영업일을 재개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다시 의무휴무에 들어간다. 5개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는 23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광주시는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 실시에 대한 반응

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마트 문을 닫아 골목 상권을 살리자'와 '너무나 억울한 처사'라는 두 목소리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휴무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대형마트와 일부 보수언론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보도를 내놓고

대형마트 상생의 묘

도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예는 다르다. 독일의 주말 가리는 대부분 상점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아 썰뿔뿔하다. 활도역과 고속도로의 휴게소 등 일부 점포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문을 연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점포의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식료품 가게는 오전까지만 영업한다. 영국은 매장 면적 280㎡(84.7평)를 초과하는 대규모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은 경우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도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규모 소매점의 허가 조건도 까다롭다. 독일은 '10%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다. 대형마트가 진출할 경우 주변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점(出店)은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서 300㎡(90.75평) 이상의 소매 점포는 신설·증설 모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파리 시내에 대형마트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영국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지난 4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적용한 광주의 경우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봤다. 지난 5월 의무휴업 첫 실시일 중순형 슈퍼마켓 118개소, 골목상권 182개소 등 총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66.2%인 331개소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출액과 관련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에는 현재 대형마트 13곳, SSM 17곳 등 3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치다. 인구 4만 7000여 명당 1개 꼴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45% 이상 급감하고, 1000여개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다. 광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선고 있어 소규모 상권 몰락은 광주권 실업문제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

공생해법 제시해야

대형마트도 이제 골목 상권, 소비자, 대형마트 스스로 공생(共生)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 스스로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그동안 경쟁적인 진출로 유통 선진화의 밑바탕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뒤흔든 것은 분명하다. 꼭 진출하려면 지자체나 지역 상권과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유통업체 스스로가 중소기업의 판로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공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생활물가를 낮추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여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상권과 상생하며 궁극적으로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겨줄 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유통산업 발전과 함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부장) lion@kwangju.co.kr

시설

'존폐 기로' 광주아트페어 대책은 없는가

광주 유일의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가 존폐 기로에 직면해 있다. 관람객뿐만 아니라 갤러리, 컬렉터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동네 잔치'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3년 전 광주비엔날레와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해 국제미술장터인 아트페어를 열었지만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올 관람객은 4일간 1만 5000여 명으로, 지난해 2만여 명보다 5000여 명이 감소했다. 영국의 사치 갤러리와 한국의 가나아트 등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이 대거 불참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한 탓이다.

홍행 실패는 무엇보다 주최 측인 광주시의 무관심과 마케팅 부재에 있다. 총 사업비 6억 원 가운데 국비와 시비 3억 원 이외에 나머지를 민간기업 후원금과 기업 부스 판매 등으로 채우려 했지만 불황 여파로 후원 기업을 찾지 못해 '말 뿐인' 아트페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 미술계에서는 예산 부

족, 인력 부족 타령만 되풀이하면서 걸치레성 행사를 치를 바에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만 34개의 아트페어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3억 원에 불과한 예산 지원을 해놓고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안 된다든 얘기가.

무엇보다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미술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유명 갤러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현 운영 주최인 문화재단의 인적네트워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3의 기관을 찾아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갤러리와 기업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전문인력 육성·영입 등도 필요하다. 시는 이런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행사부터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실속도 없이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건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다.

관리 엉망인 공립유치원 누가 보내줬나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연간 수업료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최고 20배 가까이 저렴한데도 10곳 중 9곳이 정학 미달이라고 한다. 관리와 운영상태가 대단히 열악해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는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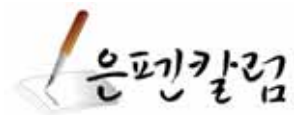
광주시의회 정회근 의원은 17일 광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내 공립유치원 119곳 중 87.4%가 정학 미달을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18곳은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동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연간 28만5000원인데 비해 사립은 516만원에 달하는 등 20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현상은 공립유치원의 사립과는 달리 교원 부족으로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통학차량 미운영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따라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어 공립유치원이 자칫 '원생 없는 유치원'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선 상심감이 클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업료가 유치원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이 뒷집만 지고 있다는 얘기가. 조기교육이 대세인 현실에서 공립유치원의 부실 운영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소홀은 정부도, 교육청이든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교원을 뽑지 않아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원 확충과 통학차량 운영 등 내실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여 인상 억제 또는 인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최희동

전남대총장 재선거가 시작되었다. 검찰수사와 교과부의 총장후보자 재추천 결정에 의해서다. 그동안의 관례였다 하더라도 사법당국에 의해 1, 2위 후보자가 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선관위가 아닌 내부의 고발에 의해 검찰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사주했다는 말도 있고,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이라는 설도 있으나, 종론은 '국립대학 교수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립전남대학교는 호남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

전남대총장 재선거, 지역민이 주시하고 있다

냈고, 그 역할에도 충실했으며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진리의 탐구, 학문 연구, 지역문화의 계승과 창조, 그리고 인재양성의 요람이었으며, 나라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수는 지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 명예 또한 대단했다. 그러기에 전남대총장은 지역의 큰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전남대는 지역민으로부터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전남대 교수는 얼마만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의 명예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남대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직선제 총장 선거의 폐해라 생각한다.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할 총장선거가 대학의 미래를 담보하는 비전과 희망보다는 교수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학연과 계파주의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후유증은 전남대가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과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훌륭한 총장을 선출하여 실추된 전남대의 위상을 회복하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엮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웅비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을 보니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재선거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기회를 만난 듯 다시 출마를 하고, 공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장선출에 대비해 미리 얼굴이라도 알리려고 나온 사람마저 있구나 안타까울 뿐이다. 13명이나 후보자등록을 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위기에 빠진 대학을 내가 구하겠다는 신념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후보 등록에 따른 기탁금이 없어 난립했다는 여론도 많다. 같은 지역에 있는 조선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후

보통독을 위해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냈다고 하는데 왜 전남대는 후보자 기탁금을 받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 총장의 역할 중 발전기금 모금은 중요한 과제다. 기업에 순도 벌이고 동물들에게 사정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또한 요즘의 추세가 선거와 관련된 비용은 후보자들이 부담하는 게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 대학을 위해서라면 후보자간 협의의 통해 발전기금을 내는 결단을 보였으면 한다.

전남대가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투표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나눔과 열정을 중시하는 인성과 화합과 소통의 자질을 갖춘 총장을 선출하고, 개교 60년 만에 맞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남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은펜칼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삼철

모든 사회는 유아들을 잘 키울 책임이 있다. 유아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의 책임임과 동시에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고 제 2의 빌 게이츠나 노벨수상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오늘날 도서관은 지식정보와 창의력으로 우열이 결정되는 시대 속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용하는 열린 문화복지공간이 되었다.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감상하고, 좋아하는 책의 작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듯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는 일이 이제는 도

책 읽는 소리, 광주를 흔들다

서관의 흔한 풍경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얻었고, 이제는 문화와 복지를 목표로 미래의 창조사회를 만들 인재양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는 우리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주역이고 이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 바로 책이며 그 장소적 공간이 다름 아닌 도서관이다. 예로부터 책은 세상과 인생의 반역자이며 도서관은 인류의 문명을 계승 발전시킨 보고가 되어 왔다. 특히 도서관은 책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국민의 심장이며 시민의 대학이다. 최근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의력이 국가발전과 부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감성의 시대에서 도서관은 창조의 발전소요, 아이디어의 산실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고 한 것처럼 도서관은 책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미래를 실현하는 희망의 공간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소리, 광주를 흔들다'라는 주제로 오는 22일(토) 유아에서부터 어른까지 3000여 명의 시민을 도시교 상무시민공원에서 제1회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전 11시 관소리, 청소년 댄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서 골든벨 대회, 북 스타트 책 꾸러미 전달, 동화책 읽어주기, 응혜원 시인의 시 낭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부소행사로서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0여 가지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이야기마당, 체험마당, 나눔마당, 홍보마당 4개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가족단위 독서진행을 위해 마련한 '독서 골든벨'은 어린이도서관회에서 선

정한 베스트셀러 5권의 책을 읽는 100가족이 참여해 서바이벌 형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키고, 마지막 문제는 감동 시장이 직접 출제해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인상하는 6개 팀에는 광주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강 시장은 이어 영유아 때부터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북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이날 문화마당 행사에서 엄마와 함께 참여하는 유아(40명)를 대상으로 동화책을 읽어줄 계획이다.

'포엠 콘서트'에서는 응혜원 시인이 직접 출연해 시 낭송 및 시 강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 등이 열려 참여자들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는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독서 관련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시민들에게 도서관과 좀 더 가까워지고, 책을 읽고 즐기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책 읽기 더할 나위 없는 독서의 계절에 어린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책과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 (광주시립도서관장)

습도 높은 화장실 세균증식 온상...칫솔 보관 신경쓰세요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화장실에서 선 채로 용변을 본다. 그리고 용변이 끝난 뒤 물을 내릴 때도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린다. 하지만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보고, 물도 뚜껑을 연 채 내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균이 공기 중에 퍼져 떠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일부에서는 가족의 건강 위생을 위해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라는 캠페인을 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화장실은 세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꾸며져 있다. 즉 화장실 안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칫솔 치약이 함께 놓여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실 내부의 엄청난 많은 세균이 칫솔에 엉겨 붙는다는 사실. 즉 양치에 사용하는 칫솔이 세균 범벅이라는 사실에 대해 거의 모든 가정이 무감각하다. 열심히 이를 닦고 나면 칫솔은 항상 화장

실에 남겨진다. 이처럼 대부분 가정에서는 칫솔을 화장실에 두고 쓰는데 그 이유는 일단 씻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장실의 습도와 온도는 세균 증식에 너무나 적합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보관된 칫솔에서 변기의 물보다 20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된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변기 주위에 칫솔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변기의 균이 칫솔로 옮겨가 더 많은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염된 칫솔을 사용하면 각종 염증이나 잇몸질환 등을 일으킬 게 뻔하다. 그러므로 칫솔을 보관할 때는 욕실이나

서랍은 피하고 다른 칫솔과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한다. 만약 칫솔을 욕실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세균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칫솔을 사용한 뒤에는 음식물이나 치약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 일주일엔 한번 끓는 물에 담근 뒤 햇볕에 말려 소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아마도 현재는 1년 내내 칫솔을 뜨거운 물에 삶는 가정조차도 적을 것이다. 우리 주부들의 이런 노력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알자. ▲김삼철·광주시 남구 도금동

無 等 鼓

'문득 루기멍 없는 소(牛)라는 말을 듣고/ 삼천 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출연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일 없이 대평가를 부르네'

조선왕조 500년간 억불승유 정적으로 맥이 끊기다시피 한 선(禪)을 되살려낸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자 원효, 보조, 지눌과 함께 한국 불교 최고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경허(鏡虛)선사의 오도송(悟道松-깨달음을 얻은 후 부른 노래)이다. 스님은 이 밖에도 유명한 계송을 많이 남겼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인 것을/ 저 강을 건너 가면/ 누가 내이고 누가 나인가/ 누구나 한번은/ 저 강을 건너야 한다/ 나 또한 다를 바 없어/ 곧 바람 맞고 불 꺼지리라/ 꿈속의 한평생을 탐하고 성내면서/ 너다 나다 하는구나'

범부로서는 어림조차 할 수 없는 현기(玄機)가 깃든 계송을 부른 스님이지만 '주색집가'를 가리지 않는 '무어행'으로 인해 한국 불교의 파계 관행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허의 수제자인 만공(滿空)은 스님에 대해 "선(善)은 부처를 능가했고, 악(惡)은 호랑이를 능가했다"고 말했으며, 법제자인 한암스님은 "선도 끝까지 이르렀고 악도 끝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교평론' 가을호에 민족사 출판사 윤창화 대표가 '경허스님이 주색으로 꼽히는 경허(鏡虛)선사의 오도송(悟道松-깨달음을 얻은 후 부른 노래)이다. 스님은 이 밖에도 유명한 계송을 많이 남겼다.'

이 때 김태희이 쓴 '인간 경허'라는 책에서 "대선사로서 주색을 제어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스님이 "출가했던 절이 당취승(처가 있는 승려)의 소굴로서, 못사람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들어 습관이 본성이 되어 그칠 수가 없었어/ 곧 바람 맞고 불 꺼지리라/ 꿈속의 한평생을 탐하고 성내면서/ 너다 나다 하는구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는 이야기가 근거다.

깨우쳤다는 선지식도 환경이나 잘못된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를 멀게 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인 것만 같아 착잡하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습관의 굴레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채취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전산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